



NO.2166

하늘 마음



카라바조의 <광야의 세례자 성 요한>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인간 존엄성 회복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레오 신부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 인격체로서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성경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물론이고, 그 가정이 속해있는 사회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기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을 소홀히 하고, 생명을 해치거나 앗아 가는 행동과 말을 한 적은 없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자세는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나와 같다고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생명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가족 모두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 간에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출처 : Freepik



또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사회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즉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인간관계의 행간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집단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성을 이루어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보다 **이타적인 생각을 하며 서로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올바른 소통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Freepik

한 해 동안 '생명이 톡톡(Talk Talk)'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생명을 저해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예를 들어 낙태, 살인, 자살, 안락사 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독, 폭력 등이 많은 생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이 피폐화되고 있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따라하기보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바로 이 복음은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입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요한 바오로 2세]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채널 추가하고 카톡으로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검색 - 친구추가하기

❖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태어난 길에 성당일주

제주 서쪽,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창성당 [제주교구]



미디어부 부장
교사 문혜지 아셀라

안녕하세요, CYA 친구들? 코끝이 참 시린 겨울입니다. 따뜻한 나라가 그리워지면서 선생님은 이전에 다녀온 여행을 다시 떠올려보았어요. 4년 전, 휴가를 위해 혼자 제주를 찾았습니다. 오롯이 쉬고 싶어서 비교적 조용한 제주 서쪽 시골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걷게 되었습니다. 추억여행으로 떠나는 오늘의 태당일주, 시작해 볼까요?



신창 풍차 해안도로

제주 서쪽엔 숨겨진 스팟이 참 많아요. 물빛이 너무나 예쁜 판포포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신창성당**은 바로 노을 질 때 가장 아름다운 신창 풍차 해안도로의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창성당은 제주 서부 지역에 가장 먼저 설립된 신양공동체로, 1935년 신창공소에서 시작하여 1957년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신창성당의 주일미사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이렇게 두 번 있

어요.



신창성당 외부 전경

신창성당 내부

크고 아름다운 마당을 지나면 빨간 벽돌과 작은 돔 형식의 지붕이 예쁘게 어우러져 있는 본당이 나옵니다.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베드로와 바오로 성인의 동상이 지붕 양쪽에 자리잡고 있네요! 들어가 보니 본당 내부

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성전은 따뜻한 목조 건축물과 벽돌이 어우러져 겨울인데도 참 포근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이 적은 미사였지만, 미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사를 보고 나오는 길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김대건신부로를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이곳은 바로 '김대건길'이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1845년 8월, 김대건 신부님은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후 라파엘호를 타고 서해로 귀국하던 길에 풍랑을 만나 '용수포구'에 표착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고국 첫 미사를 봉헌하신 곳도 바로 여기, 용수포구입니다.



김대건신부로 표지판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
▲ QR코드 : 가톨릭신문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고산성당에서 시작하여 용수성지를 거쳐 오늘 소개한 신창성당에서 끝나는 '김대건길'이 조성되었어요. 용수성지에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기념 성당과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이 있어요. 라파엘호의 모양을 본따 만든 기념관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라파엘호의 여정, 제주교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난 김대건신부로, 한국 가톨릭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숭고한 마음에 경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신창성당 근처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내부가 정말 특이해요. 마치 영화관 같죠? 이곳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커피와 쿠키를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니 시끄러운 마음도 차분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맛집도, 멋진 관광지도 참 많은 제주지만, 우리 CYA 친구들도 언젠가 휴식을 한다면 바로 이곳, 제주 서쪽을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한 해가 다 갔네요. 2025년에도 태당일주는 계속됩니다! 내년에 만나요!



복음자리

2024년 12월 8일 |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루카 3,1-6)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6)

새겨보기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강조하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한 회개를 넘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내적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굴곡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려주며, 그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통해 마음을 준비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바꾸고 회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꿈과 목표를 하느님 뜻에 맞추어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